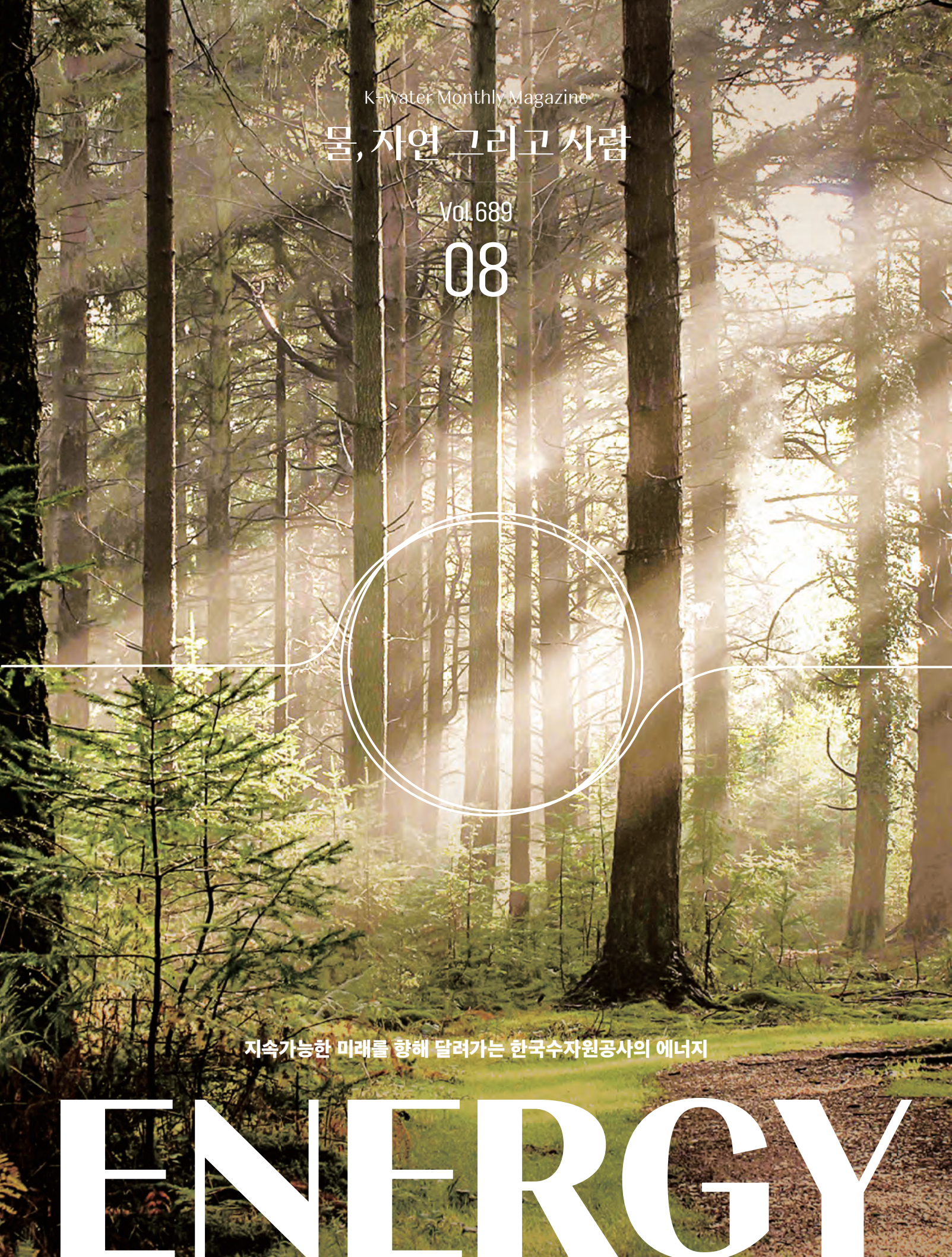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89

08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에너지

ENERGY

THEME 1

열정

2025년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 가지 단어 속에
담긴 두 가지 해석에 집중합니다. 8월호의 키워드는 'Energy'입니다.
여러분은 'Energy'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여러분을 반짝이게 하는 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THEME 2

동력

두 번째 테마는 '동력'입니다. 동력이란 변화를 이끄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재생에너지'라는 미래의
동력을 품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힘찬 발걸음을 만나보세요.

열정







6. 월간 수토픽
물 에너지로 여는 RE100 시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K-water

10. Gallery
우리가 품고 있는
에너지의 온도

14. Theme Road
내 안의 별이 춤을 추었다
이맘때 춘천

20. Travel Guide
잠든 공간에 에너지를 더하다
재생공간

22. Voice on Road
사랑으로 이어붙인 소리의 조각
악기수리사 임성균

26. The Kit
열정 만렙 직장인을 위한
업무 능률 향상 아이템

28. Taste Note
지금 지쳤나요? 아니오
에너지 회복을 도와주는 여름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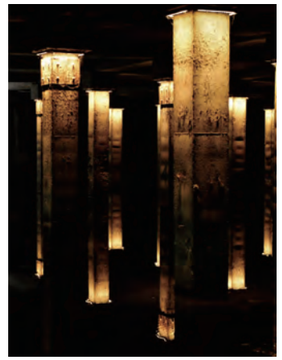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8월 1일 | **통권** 689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동력







30. Theme Prism
내 안에 Energy를 깨우다

32. Opinion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

34. Talk with
나주수도지사 들른 김에 둘러보는
나주 핫플 언박싱

38. 수타벅스가 간다
긴장된 하루 속 여름철 안전을 지키는
수자원운영처

42. Water & Tech
AI로 인한
물 관리 생태계 변화

46. Light on
달콤한 온기, '온(溫)가족'의 첫걸음
성심당과 함께한 케이크 클래스

48. Newsroom

52. Water Lounge
빛과 온기가 흐르는 물길
홍제유연-홍제천

56. Monthly Issue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단의
계절을 살아가며

58. Water Tales
용이 사는 생명의 근원
금강산 구룡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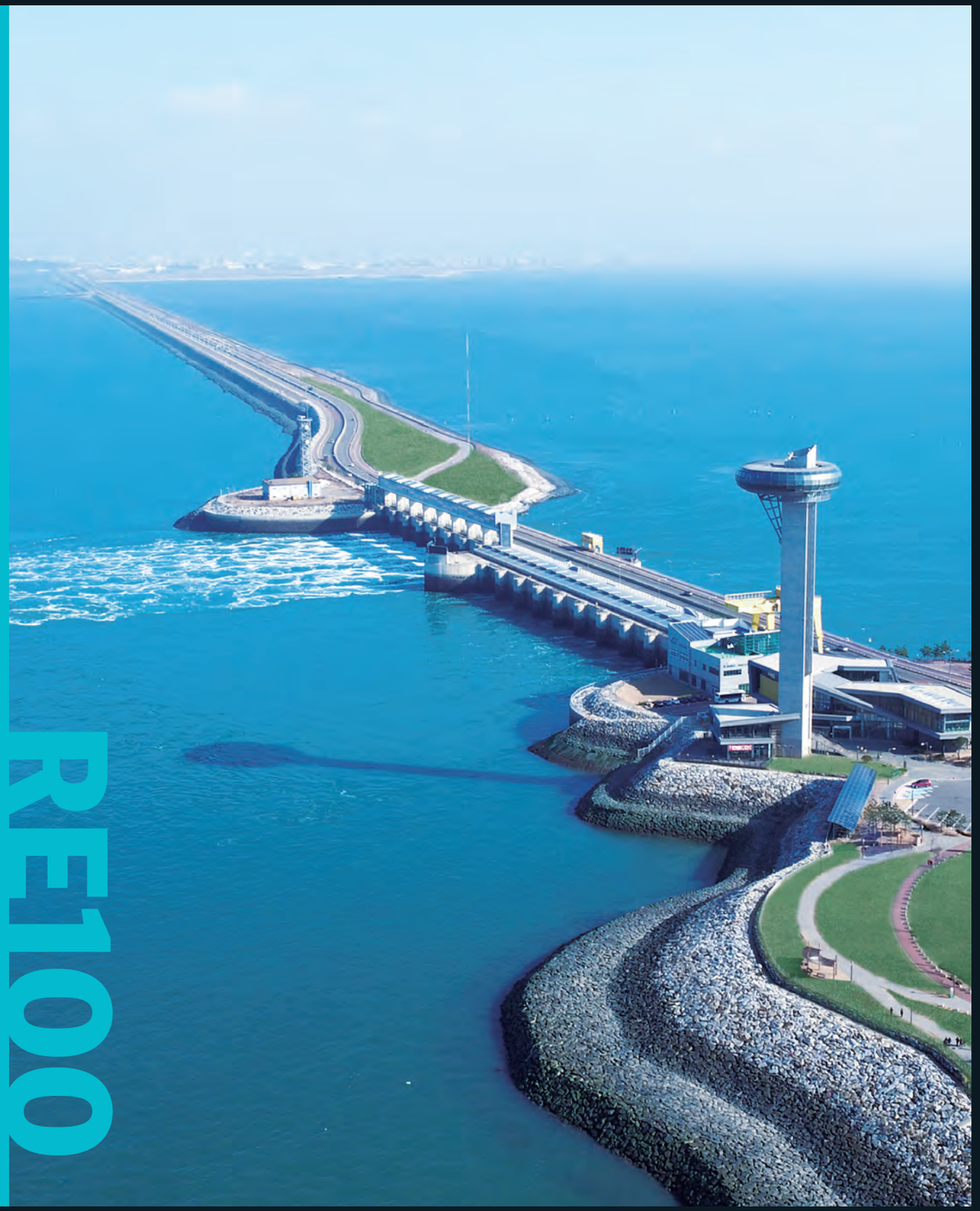
60. #알고리즘

62. 방울사서함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물 에너지로 여는 RE100 시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K-water

기후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이행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의 녹색 보호주의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첨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내기업들이 직면한 녹색 무역장벽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국내 최초 RE100 달성 눈앞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으로서 국가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 왔다. 1973년 소양강댐 수력 발전을 시작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시화호 조력 발전과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그린수소 등 물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총 1.5GW 규모로 단일기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이는 국내 총 신재생에너지의 4.6%를 차지한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인프라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글로벌 RE100 회원사에 가입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발적 민간 캠페인이다. 현재 175개국 424개사가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한국기업은 36개사다.

2024년 기준 국내기업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최초로 RE100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 연간 총 전력사용량 1,735GWh 전량을 자가소비용 태양광 56개소와 대수력발전시설 10개소의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사용했다는 이행실적을 CDP에 보고했다.

무역장벽이 된 RE100, PPA로 기업지원 나서

2024년 말 기준 RE100을 달성한 기업은 33개사로, 주로 제조 시설이 없는 사무공간이나 데이터센터 중심의 서비스업 및 소매업 기업이 대부분이다. 국내기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글로벌 RE100 회원사로 등록된 36개사의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은 12%에 불과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주로 해외사업장에서 이뤄졌으며, 국내사업장에서 RE100 이행률 50%를 넘긴 기업은 단 두 곳뿐이었다. 반면 해외사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SK 스페셜티가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달성했고,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등도 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RE100 이행이 더딘 이유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사업장의 전력 소비량보다 재생에너지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높은 발전 단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송배전 인프라 부족, 주민들의 발전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도 RE100 달성의 제약사항으로 꼽힌다. 이에 글로벌 RE100 회원사를 포함한 국내기업들은 RE100 이행을 위해 국내보다는 해외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내 일자리 감소와 외화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거래계약)를 통해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이슈와 녹색무역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수력, 조력, 수상태양광과 풍력으로 6건 299MW의 직접 PPA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국내 PPA 공급 물량 중 1위이다. 향후 신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 PP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힘
지역 상생의 스위치를 켜는 물 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 조력 등 물 에너지를 활용한 전통적인 발전 외에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의 특성을 활용, 물의 열을 히트펌프로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다. 2006년 주암댐 발전소 건물을 시작으로 2014년 롯데월드 제2타워에 3,0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고, 환경부와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와 대형건축물에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삼성무역센터 수열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착공했다. 삼성무역센터는 연면적 약 72만㎡에 달하는 초대형 건축물로, 인근의 광역상수도관로의 물을 수열원으로 활용하여 7,000RT의 수열에너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단일 건물 최대규모의 수열에너지사업으로 기존 냉난방기 대비 20~5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4년 소양강댐의 심층수를 데이터센터의 냉각에너지로 활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착수했으며, 하남교산 APT 세대별 수열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수열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내 수열에너지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물 에너지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가 되기도 한다. 2021년 준공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댐 주변 지역 20여 개 마을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투자 비율에 따라 매년 최대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주민참여형사업으로 추진됐다. 올해 준공예정인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역시 주민참여형 SPC



사업으로 추진되며, 집적화단지로 지정 시 발생하는 추가수익은 지자체에 환원하여 주민 복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사업의 수상태양광 모듈은 기존의 각진 형태가 아닌 지역의 상징성을 담아 제작되었는데, 합천댐은 합천군의 군화인 매화로, 임하댐은 안동시의 특색을 담아 태극기와 무궁화로 디자인하여 댐의 경관을 한층 높이고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인프라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에너지사업

수력 발전
하천 또는 호소 등에서 물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수차를 이용,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으로 대표적인 청정 재생에너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수력 발전의 60%(설비용량 기준)에 해 당하는 1,093MW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앙갓 수력 발전,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 발전, 솔로몬 제도 티나 수력 발전 등 해외에서도 오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력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력 발전
조석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해수면의 수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54MW 규모의 국내 유일, 세계 최대 시화조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화호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스마트 발전 시스템과 물관리 디지털트윈를 접목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조력 발전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고 있다.



수열에너지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물의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한다. 냉각탑이나 실외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소음과 진동, 열섬현상 등의 해소가 가능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의 심층수를 활용해 2024년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착공했으며, 국내최초로 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팜 등의 냉·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상태양광
댐, 저수지 등 수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발전시설로,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 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주암댐에 2.4kW, 2012년 합천댐에 500k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세계 최초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모델을 상용화했다. 현재 보령, 충주 등 총 6개소 58MW의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육상태양광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정수장, 취·가압장 등 수도 시설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소내 소비형 태양광을 통해 수도 생산원가를 저감하고 있다. 앞으로 수도 시설과 수자원 유휴부지, 댐 홍수터 부지 등을 활용하여 육상태양광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린 수소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된 수소를 그린수소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와 함께 지난 2023년 9월 성남정수장에 소수력 전력을 활용해 연 최대 약 62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출하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인근에 설치되어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소가 배관망을 거쳐 직접 공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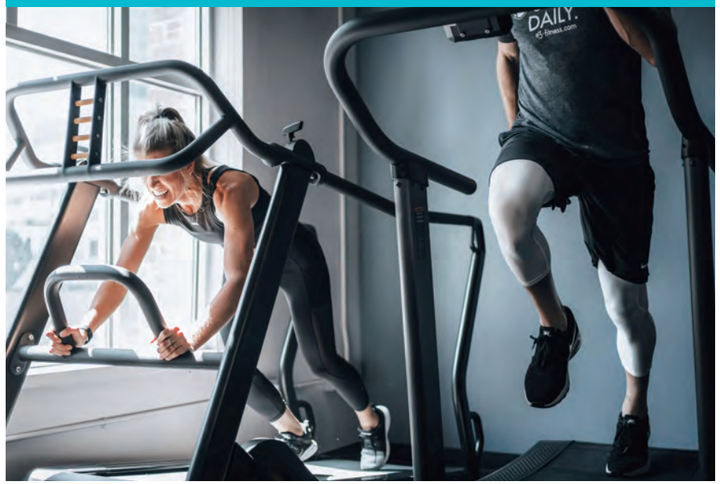
ENERGY

우리가 품고 있는 에너지의 온도

작열하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
가슴 속에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렬한 마음,
시간이 멈춘 듯 몰입하는 순간,
몸과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열정'이라는 불꽃입니다.





Fueled by energy



열정이란 속삭이듯 다가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춤을 추며 불씨를 키워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침없이 온몸을 휘감으며 우리의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마치 내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말이죠.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새로운 길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여정이지만
불확실함 속에도 내 마음의 불꽃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 힘이 '열정'이라는 에너지 아닐까요?

당신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글, 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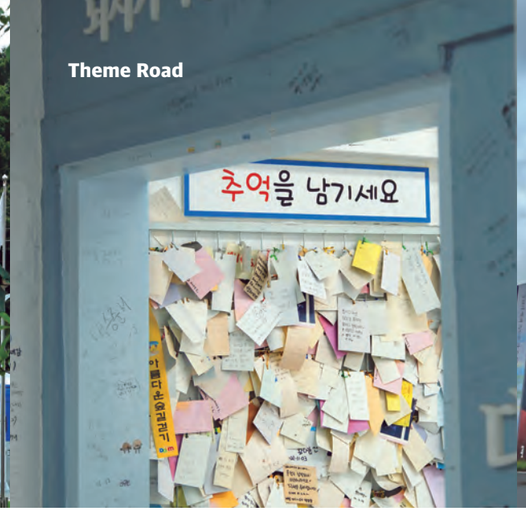
내 안의 별이 춤을 추었다

풋풋했던 청춘 시절, 즐겨 찾던 곳이 춘천이다. 돌이켜보면 그땐 뜻 모를 열정과 에너지로 충만했다.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내 청춘도 유행가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내 발걸음이 머물렀던 곳에
오늘의 청춘들이 발 도장을 찍고 있다.
그 틈에 조용히 들어가 보폭을 맞췄다.
청춘의 에너지와 열정이 스멀스멀 전이되는 것 같았다.

이맘때

춘천







멈추지 않고 여전히 '재생'되는 에너지

2000년대 초반까지 춘천은 대학생들의 MT 명소였다. 해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춘천에서 청춘을 발산했고 불태웠다. 당시 춘천에서 가장 핫한 곳은 강촌이었으며 그 중심은 강촌역이었다.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용도가 바뀌었지만, 당시 강촌역은 아이스박스, 배낭, 라면박스 등을 바리바리 싸든 대학생들로 인산인해였다. 휴대전화가 귀하던 시절 대학생들은 삐삐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공중전화 앞은 언제나 장사진이었다.

강촌상상역은 김유정역과 레일바이크로 연결된다. 김유정역은 옛 역과 신축 역이 200m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자리한다. 1939년 신남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김유정역은 2004년 현재의 역명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기차역 중 최초로 사람 이름을 사용한 역이 됐다. 하지만, 2010년 경춘선 전철 개통으로 새 역사가 문을 열면서 기존 역사는 추억을 간직한 채 문을 닫았다. 대신 레트로한 재생 공간으로 거듭나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당신 여기 기억나? 우리 새내기 여름방학 때 춘천에 MT 왔을 때, 그때 내렸던 역이잖아.", "어쩜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대학생 커플로 만나 결혼까지 했다는 40대 부부는 풋풋했던 그 날을 떠올리며 둘만의 추억 여행을 이어갔다.

옛 김유정역사 안에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일상 소품을 전시 중이었다. 그것들에서 지난한 세월이 묻어났다. 온종일 반복해서 노래를 듣느라 늘어난 카세트테이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던 만화책, 부모님이 집을 비운 날 친구들과 몰래 보던 비디오테이프 등 기억 저편에서 추억이 퐁퐁 샘솟았다. 빛바랜 사진과 낡은 역무 용품들, 삐삐, 2G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역사 밖에는 북카페와 관광안내소로 문을 연 무궁화호 객차가 서 있다. 하릴없이 객차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 추억을 되새김질하며 길게 이어진 철길을 내다봤다. 기억 저편에 있는 아련한 그 무엇이 떠오르는 듯 아득했다.



Travel TIP

'당신이 힘들게 찾던 무지개가 바로 당신이었음을'처럼 옛 김유정역 플랫폼 주변에는 재미난 문구를 활용한 포토존이 많아서 이른바 '설정 샷'을 남기기에 그만이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300여m 거리에 있는 김유정문학촌도 둘러보길 추천한다. 짧지만 열정적인 삶을 살다간 소설가 김유정의 생애와 작품을 볼 수 있는 김유정문학촌과 생가, 단편소설 『봄봄』을 모티브로 한 '김유정이야기집'이 있다.

김유정역

A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35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곳

북한강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다 남촌면에 닿았다. 이곳 북한강은 잠시도 고요할 틈이 없었다. 각종 수상레저업체가 즐비한 까닭이다. 그중 수상레저와 카트, ATV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스피드존을 찾았다.

굉음을 내며 모터보트가 질주했고, 그에 매달린 수상스키는 크림 같은 물거품을 일으키며 물살을 갈랐다. 물 위를 방정맞게 통통 튕기며 질주하는 바나나보트에서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살아 있음을 노래하는 감탄의 세레나데처럼 보였다.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는 초보자도 강습만 받으면 곧바로 실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냈다. 필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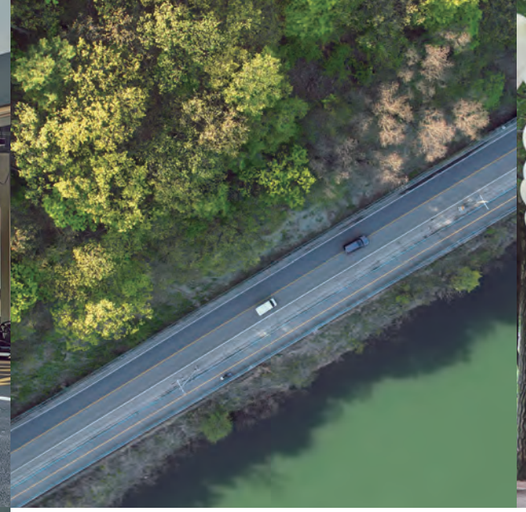
물 위에 버티고 서 있을 근력과 열정만 있으면 된다. 웨이크보드 강습은 지상에서 먼저 진행됐다. 스쿼트 자세로 앉은 채 두 손으로 로프를 잡으니 강사가 로프를 당겼다. 적당한 장력이 느껴질 때 코어에 힘을 주고 상체를 세워 기마자세를 유지하면 끝이다. 이 훈련을 몇 차례 반복한 뒤 물속에서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갔다. 지상에서 배운 자세를 물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반복적으로 연습했다. 드디어 실전. 보트에서 '출발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이윽고 모터보트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잡고 있던 로프가 당겨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마자세가 됐다. 1차 성공을 맛본 뒤, 모터보트가 전진할 때 생

기는 파도 안에서 주행을 이어갔다. '세상에 이게 되네!' 단지 열정 한 스푼 추가했을 뿐인데, 신세계를 맛봤다.
선뜻 도전이 어렵다면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에 도전해보라. 구명조끼를 입고 기구에 탑승한 뒤 안간힘을 다해 기구에 매달려만 있으면 된다. 단순한 것 같지만 뒤따라오는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엄청난 양의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분출해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이어서 카트와 ATV도 즐겼다. 카트 트랙은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했다. 총연장 655m에 회전구간만 10곳에 달했다. 업체가 사용하는 카트는 유럽 레이싱 선수들이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50km다. 차체가 낮고 개방된 탓에 실제 속도감은 2배에 달했다. ATV는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스피드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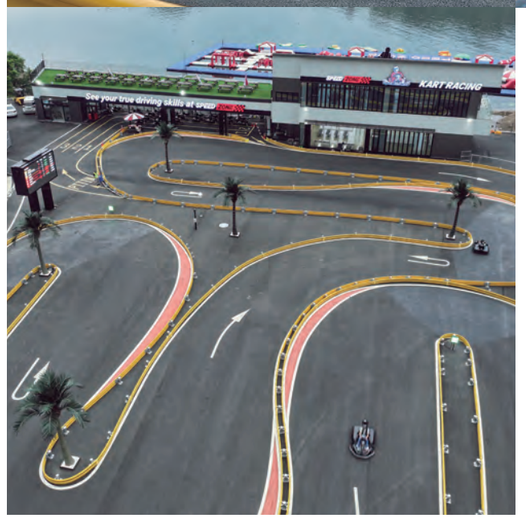
A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하로 373
T 033-261-8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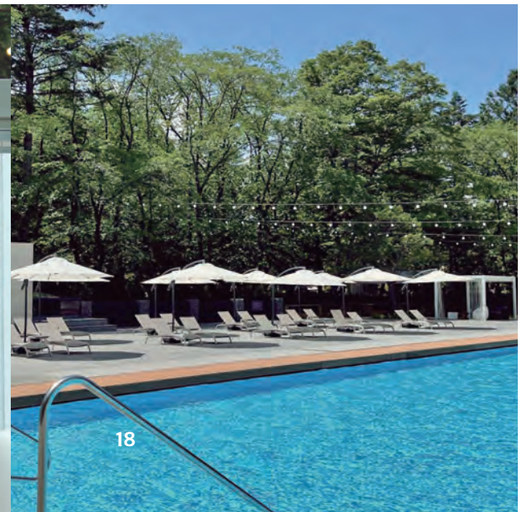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남이섬

강 건너 선착장에서 바라본 남이섬은 녹음에 촉촉이 젖어 있었다. 배에 오른 지 5분 남짓한 시각. 배가 남이섬에 닿았다. 장마가 끝날 무렵이라 습기를 잔뜩 머금은 나무는 파릇파릇한 기운이 넘쳤다. 하늘로 쭉쭉 올곧게 뻗은 가로수와 드넓은 잔디밭,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랫소리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조와 공작새, 그리고 여기저기 자리 잡은 조형물과 건물들이 모두 가족처럼 조화롭다.
중앙잣나무길을 중심에 두고 여러 샛길이 열렸고 그 길 너머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그중 메타세쿼이아길이 인상적이다. 남이섬에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인 드라마 <겨울연가>에 등장한 길이다.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남이섬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했다. 조용히 산책하며 자연에 한발 다가서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달려도 좋다. 좀 더 편한 방법을 원한다면 전기자동차 투어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여름에 단연 인기 많은 곳은 숲에 둘러싸인 야외수영장 '워터가든'이다. 자연 속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는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온수풀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남이섬다운 방법이다. 여기에 수심과 온도에 따라 큐브풀과 키즈풀 등 다양한 풀장이 있으며 나무 그늘에 자리한 카바나와 선베드 등 부대시설도 갖춰져 있어 여유롭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여름에 찾은 남이섬은 뜨거운 태양만큼 열정으로 충만했다. 청춘들은 별 이유 없이 폭소했고, 과장될 만큼 크게 반응했다. 그것이야말로 청춘의 매력이자 특권이라 여겨졌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내 안에서 춤추는 별을 발견했다.
사무엘 울만은 시 '청춘'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남이섬 종합휴양지선착지

A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45-2
T 0507-1311-8114

글. 편집실 사진. 각 공간 제공

잠든 공간에 에너지를 더하다 재생공간

쓰임을 다한 것들은 자연스레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럴 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꺼져가는 에너지를 다시 살리는 '재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공간의 회복을 넘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국의 재생공간을 소개한다.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시화공단의 끝자락 시흥물환경센터는 지역 내 하수처리를 맡고 있는 곳이다. 쓰임을 다한 시설들은 폐산업유산이 되기 마련이지만, 시흥시에서는 이곳을 '맑은물상상누리'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문을 열고 있다.
메인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처리 시설인 '소화조'를 재해석한 '비전타워'로 높은 층고를 살려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을 압도하는 화려한 예술작품들이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듯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밖에 하수처리 과정을 체험형 전시로 배울 수 있는 '창의센터', 농축조와 분배조를 연결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 전시와 공연 등 문화예술의 장이 된 'be, fore' 등도 신선하다.
맑은물상상누리가 다른 재생공간과 차별화되는 점은 완전히 폐쇄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 시설의 '일부'를 활용, 공간의 기억을 중첩시키며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A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14
T 031-310-2993



울산 Fe01

우리나라 대표 공업도시인 울산에 위치한 'Fe01'은 'Fe'가 철의 원소기호인 것을 눈치챘다면 이 공간의 정체성을 바로 유추할 수 있다. 이곳은 폐자동차, 오토바이 부속품 등 온갖 산업폐품을 재료로 한 정크아트 작품을 통해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펼쳐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업사이클 복합문화공간이다.
Fe01에 들어서는 순간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섬세한 조형물들이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다. 영화 <스타워즈> 우주선 '팔콘'을 본따 만든 전시장이 압도적이다. 상설전시 <EXTENSION OF ORIGIN : 기원의 확장展>에서는 정크아트 설치미술가 김후철 작가의 업사이클 조형예술 1,0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로봇시리즈', '기원의 확장', '상상동물원', '쥬라기파크', '영화시리즈' 총 5가지 테마로 나뉘어 있으며, 호기심 많은 우주여행사 '루따따'라는 캐릭터가 작가의 세계관을 대변한다.
전시관 옥상에는 카페가 있다. 이곳에서는 Fe01의 모습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사람들에 의해 버려진 자원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재생'의 가치에 대해 되새겨 보게 된다.

A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용연길 160
T 052-237-0102



서울 문래창작촌

서울 문래역 7번 출구에서 5분 남짓 걸어가면 고철로 만든 조형물이 눈에 들어온다. 문래동은 과거 철공소 밀집 지역으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다양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느라 연일 '지잉지잉' 쇠 자르는 소리가 들리던 곳이었다. 바쁘게 돌아가던 철공소 거리에 예술이 스며들었고, 예술가들의 공방, 갤러리, 작품, 레트로 감성의 숍들이 즐비한 '문래창작촌'으로 변신했다.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숨은 작품 찾기를 하듯 곳곳에서 알록달록한 벽화, 양철로 만든 작품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발길을 당길 만한 감각적인 가게들도 많다.
이곳에 자리한 '술술센터'는 기술과 예술을 융접하는 융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예술인과 기술인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방문객 또한 자유롭게 들러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28가길 13-8









부산 깡깡이예술마을

자갈치시장 건너편, 영도대교, 남항대교와 맞닿은 곳에 위치한 물양장에는 배들이 가득 들어차있다. 항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곳은 선박을 고치는 '수리조선소'가 십여 곳 모여있는 곳이다.
대평동 일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세워진 지역이다. 배 표면에 녹이 슬어 너덜해진 페인트나 조개 같은 이물질을 털어내기 위해 망치로 두드릴 때 '깡깡' 소리가 난다 하여 '깡깡이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리고 2016년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깡깡이예술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며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나섰다.
깡깡이예술마을에서는 매주 주말 하루 3회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깡깡이 해상투어는 유람선을 타고 부산 남항과 대평동 수리조선소 일대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며, 마을투어는 마을해설사와 함께 예술마을을 걸으며 이곳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화려한 페인팅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컬러풀 스트리트'를 걸으며 인증샷을 남기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걷다 문득 이곳이 '수리조선소'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잠든 공간에 불씨를 붙여 더욱 강렬해진 에너지가 느껴질 것이다.

A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북로 36
T 0507-1488-3337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사랑으로 이어붙인 소리의 조각

**무대 위에서 소리로 마음을 전하던 클라리넷 연주자에게 한순간 악기를 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마음일까.
무대를 완전히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임성균 씨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떠오르는 건 역시나 음악뿐이었다.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에서 수리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음악 속에 살고 있는 임성균 씨를 만났다.**

악기수리사 임성균



시작하자 끝나버린 사랑

가느다란 현악기의 선율, 웅장한 울림으로 공기를 메우던 금관악기,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타악기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오케스트라 연주는 마치 현실 너머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같았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휘몰아치는 선율에 귀를 기울일 뿐. 그때 한 줄기의 음색이 그의 귓가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부드럽고도 선명한 소리를 가진 클라리넷이었다. 벌써 십수 년이 흐른 이야기지만 임성균 씨는 클라리넷과의 첫 만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이다. "단지 연주하고 있을 뿐인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소리에서 따스함이 느껴졌거든요. 그 아름다운 음색에 홀딱 반한 거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 자체도 너무 멋있었어요."

처음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한 건 단순히 호기심에서였다. 그러다 우연히 출전한 대회에서 상을 타게 되면서 욕심이 생겼고, 소리를 다루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음악에 대한 사랑도 점점 더 깊어졌다. 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연주자의 길을 걷게 된 그에게 브레이크를 건 것은 '건강'이었다. 대학교 3학년, 진로 선택을 앞두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진단명은 '망막박리'. 한 달가량 병원 신세를 지다 겨우 퇴원을 하고, 악기를 잡았는데 이번엔 또 다른 게 문제였다. "오른쪽 입술과 볼이 심하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는 눈 수술을 하느라 신경을 마취한 게 좀 오래가는 거라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클라리넷을 불기는커녕 입에 대는 것조차 힘들었다. 결국 악기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십 년의 짧고도 치열했던 음악 사랑은 이대로 막이 내리는 듯했다.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사랑했던 음악이 결국 나를 떠나는구나'라는 생각에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단다. 무대를 보기도, 악보를 보기도 무서워졌다. 그렇다고 모든 걸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음악만큼은 도저히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직접 연주를 할 수는 없어도, 누군가의 소리가 제대로 울릴 수 있도록 손을 보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라도 음악 곁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이 점점 간절해지면서 '악기 수리'라는 길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돈이 없던 학창시절엔 악기가 고장나면 스스로 고쳐 쓰곤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돌이켜 보면 모두 엉터리였지만요(웃음)."

악기를 고칠 땐 단순히 기술만이 필요한 줄 알았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기술과 섬세함은 물론 악기와의 교감, 악기에 대한 철학도 필요한 일이었단다. 게다가 관악기에 대해 성균 씨가 아는 거라곤 클라리넷이 전부였기에 '제대로 된 수리'를 배워보기 위해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다. "악기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듯 섬세하고 철학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 또한 수리사로서 '왜 소리를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가 내린 해답은 '완벽'보다 '애정'이었다. 오로지 원칙만을 따져 고치기보다는 연주자의 성향, 악기에 담긴 손길 등을 살피는 수리사가 됐다.

프랑스에서 2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는 제주도로 향해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의 애정과 열정을 마주했다. 그리고 지금은 고향인 춘천으로 돌아와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음악'으로 연결되고 있다.

기억과 시간을 고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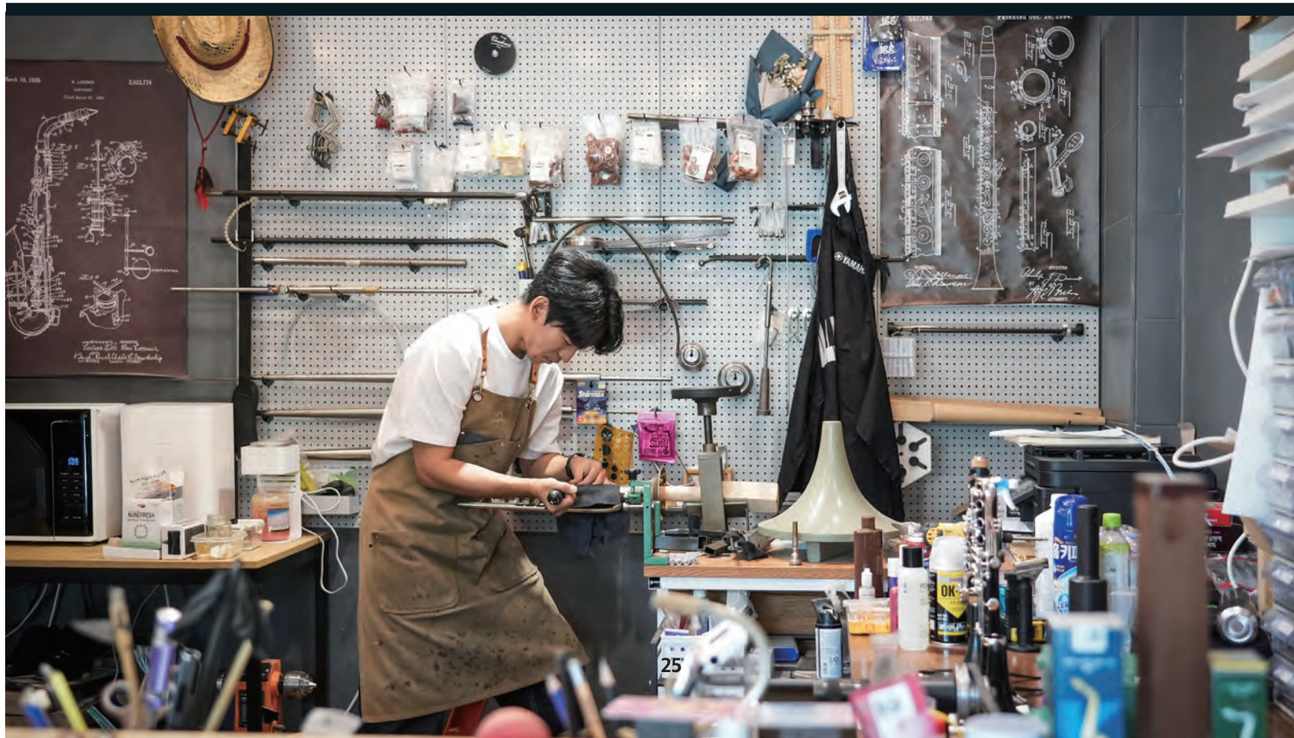
녹이 슨 색소폰, 핀이 빠진 클라리넷, 관이 눌린 튜바, 벨이 찌그러진 트롬본 등 성균 씨를 찾아오는 악기들의 모습은 제각각이다. 때로는 창고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어 맡겨지는 것들도 있단다. "60년 정도 방치되어 있던 트럼펫을 맡기고 간 분이 있었어요. 기억 속에 잊고 지내다 우연히 발견하고는 '이것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찾아오시는 거죠. 복원된 트럼펫을 불며 '이 소리의 아름다움을 잊고 있었어요!' 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보람차요."

성균 씨에게 무언가를 고친다는 것은 기억과 시간을 재생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수리'란 단순히 부품만을 고치는 일이 아니에요. 소리가 다시 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죠. 악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주자가 다시 악기를 쥐었을 때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 연주자의 손과 입, 호흡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되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악기 수리사에 '숨 악기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연주자의 호흡과 악기의 생명에 숨을 불어넣는 곳이라는 의미에서다.



그가 운영하는 악기사는 악기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에 대해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앗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요즘은 지역 오케스트라에 참여해 소소하게나마 다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음악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뻐요. 결국은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인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였을까. 방황은 짧았고, 행복은 확실했다. 연주자이자 수리사, 성균 씨는 이제 '음악가'로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글. 편집실 그림. Rosy

열정 만렙 직장인을 위한 업무 능률 향상 아이템

직장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책상. 이곳에 놓인 아이템 하나하나, 배치 하나하나가 업무 능률을 좌지우지 한다. 열정 가득한 직장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업무 능률 향상 아이템을 소개한다.

일잘러의 필수소양, 메모존

뇌는 시각 정보를 통해 기억력을 강화한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일정과 목표를 정리하는 메모존을 마련해두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지고 계획 실천율도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메모는 파티션에 바로 꽂거나 붙여도 좋지만 타공판이나 집게형 클립보드를 사용하면 인테리어 효과도 덤으로 누릴 수 있다.

거북목 증후군 극복!
모니터 받침대

목 디스크와 거북목은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모니터의 높이와 눈높이가 맞지 않을 경우 목을 숙이거나 고개를 과도하게 꺾어야 해서 목과 어깨에 무리가 생긴다. 모니터 받침대를 사용해 모니터 높이를 5~10cm가량 올려주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장시간 작업에 대한 피로감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모니터 받침대 아래 공간을 명함통, 필기도구 등 사무용품 정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그립감
버티컬 마우스

손끝이 저릿하거나 손목이 뻐근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마우스를 바꾸어 보자. 손목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인체공학 마우스, 일명 버티컬 마우스는 일반 마우스에 비해 손목과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손목이 책상을 누르지 않아 근육에 미치는 부담과 업무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눈 건강 지키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모니터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중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빛으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눈의 피로, 두통, 시력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눈을 찌푸리고 있거나 눈이 뻐근하고 건조한 느낌이 든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해 보자.



시간 관리를 위한 강력한 한방
타이머

퇴근시간이 되도록 정신없이 일했는데도 여전히 일이 남아있는 경험이 있다면 시간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한 시간을 기준으로 잔여 시간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타이머는 직관적인 표시가 심리를 압박해 업무에 부스터를 달아 준다.

정리가 성공을 부른다

책상 정리 노하우

과감하게 버리기

정리를 할 땐 과감해져야 한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류를 쌓아 놓기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버린다. 시기가 이미 지난 내용의 서류나 사용이 끝난 물건은 싹 치우자. 여기저기 붙어있던 포스트잇 또한 필요한 시기가 지나면 떼어 버려야 책상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데이터로 남기기

여기저기에서 받은 명함, 일정을 기록해 둔 종이, 너저분하게 방치된 서류 중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이더라도 반드시 인쇄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럴 땐 간단하게 컴퓨터 파일로 기록해두면 검색도 쉽고 공간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두고, 덜 사용하는 물건은 서랍이나 높은 곳에 배치하는 등 사용 빈도에 따라 물건을 정리하면 좋다. 또한 문서를 색상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면 필요 시에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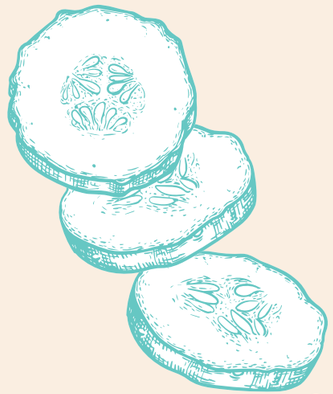
작은 습관 만들기

책상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상을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자. 사용 후 즉시 물건을 제자리에 두거나, 매일 퇴근 전 5분간 책상 정리하기 등의 습관이 쌓이다 보면 정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글. 조수빈

지금 지쳤나요? 아니오 에너지 회복을 도와주는 여름의 맛

청량한 하늘, 부서지는 햇살, 청록의 산세, 푸른 바다 등 여름의 풍경은 일 년 중 가장 색이 짙고 활기차다. 그러나 후덥지근한 날씨에 우리는 땀을 줄줄 흘리며 몸과 마음이 쉽게 축 처지고 만다. 기력도, 입맛도 잃기 쉬운 여름. 기운을 북돋워 주는 식재료를 소개한다.



여름 채소의 대명사

오이

여름철이나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수분을 빠르게 보충하기 위한 간식으로 '오이'를 먹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오이는 약 96%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갈증 해소와 탈수 방지에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오이의 찬 성분은 체내의 열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하다. 뙤약볕 아래 오래 노출되어 있어 피부가 화끈거릴 때에도 오이 팩을 올려두면 열이 가라앉는다. 비타민C로 인해 피부 탄력을 되찾을 수도 있다. 예로부터도 오이는 일사병을 막는 천연 약재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입맛을 잃었다고 해서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만 찾고 있다면, 이때도 오이가 도움된다. 오이의 함유된 칼륨이 천연 이뇨제로서 몸속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 몸의 부기를 빼주고 피를 맑게 한다. 이러한 효능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오이를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육에 비해 껍질에 더 많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이다.

작지만 강한 힘

복분자



'복분자'는 6월에 열매를 맺어 8월까지 맛과 영양이 절정을 맞는다. 제철 맞은 복분자 열매에는 폴리페놀, 안토사이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무더위에 지친 몸에 기운을 돋운다.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에도 탁월하다.

이처럼 다양한 효능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스태미나에 좋다는 점이다. 복분자의 안토사이아닌 성분이 활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복분자(覆盆子)'라는 이름 또한 '먹고 나면 요강이 뒤집어질 정도로 소변 줄기가 세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복분자는 특히 장어와 궁합이 좋아 함께 먹으면 비타민A의 작용이 더욱 활발해져 피로 회복과 항산화 효능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다만, 과다 섭취할 시에는 복통, 복부팽만,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분자 속 산성이 위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당량만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폭염을 이겨낼 차 한 잔

페퍼민트



여름철엔 수시로 시원한 커피나 탄산이 생각나기 마련. 그러나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도리어 수분을 빼앗고, 탄산음료는 체내 칼슘을 빼앗거나 속을 더부룩하게 만든다. 그럴 땐 맛과 건강에 좋은 차에 시선을 돌려보자.

상쾌하고 청량한 맛의 '페퍼민트'는 마시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날리기에 좋다. 실제로 페퍼민트 속 멘톨 성분은 체내 열을 식혀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반면 카페인은 없어 몸이 처지거나 나른할 때 커피의 대안으로 좋다. 멘톨 성분은 속 쓰림을 비롯해 소화불량, 설사 등의 식중독 증상이나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데도 뛰어나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한다. 또한, 해열 효과가 있어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 탄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페퍼민트 잎의 향균 작용은 입속 세균을 억제하거나 아토피, 각종 염증성 피부질환 완화에 좋다. 이렇듯 페퍼민트의 찬 성분은 여름철 더위 해소에 좋지만 평소 손발이 찬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여름을 잡는 초록 맛

매실

날씨가 더워지면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이 식욕 촉진 물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여름철엔 음식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며 식욕 부진이 나타난다.

'매실'은 입맛이 없을 때 사람들이 자주 찾는 단골 식재료다. 매실의 새콤한 맛이 미각을 자극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매실에 풍부한 구연산은 침샘과 위샘을 자극해 침, 위산, 소화 효소 등이 적절하게 분비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작용이 떨어진 입맛을 되살리고 소화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고온다습한 날씨에 신선도가 떨어진 음식을 먹게 되거나 차가운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는 탓에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기 쉬운데, 매실에 함유된 벤조산, 카테킨산 등의 살균성분이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름 감기 예방에도 좋다. 한여름 실내외의 극명한 온도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두통, 오한 등의 냉방병 증상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도 매실 속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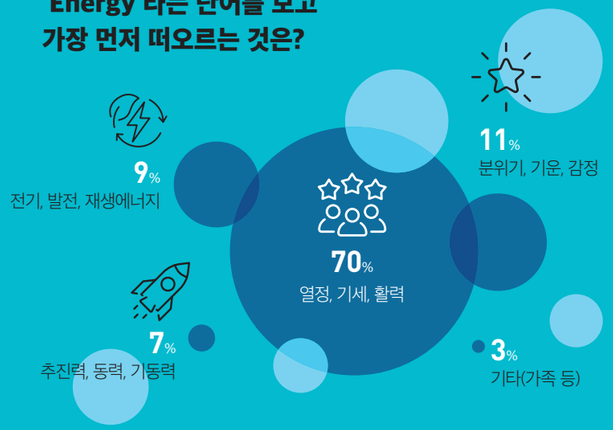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내 안에 *Energy* 를 깨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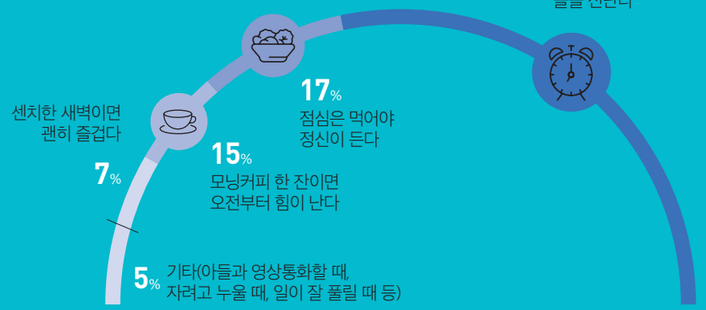
Energy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있다.
작은 관심이 열정의 불꽃을 틔우기도 하고, 그 열정은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은 가슴 속에 어떤 불씨를 품고 있을까. 직원들이 품고 있는 Energy의 온도를 함께 느껴본다.

응답자 수 17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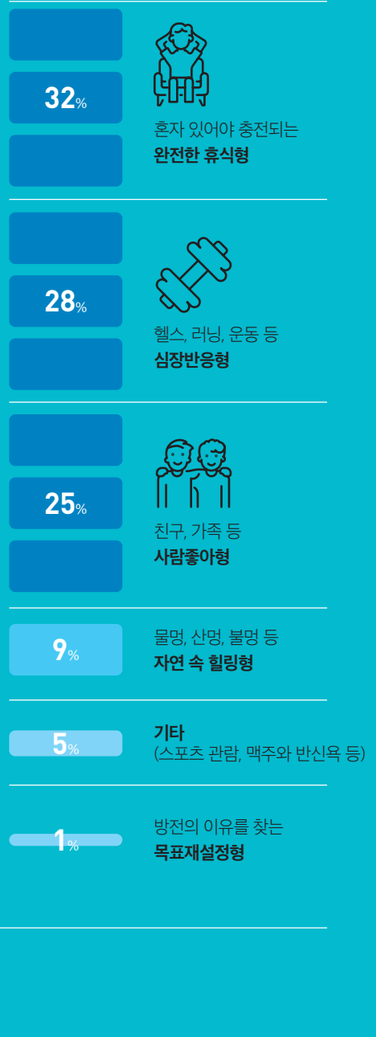
‘Energy’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루 중 Energy가 가장 생기는 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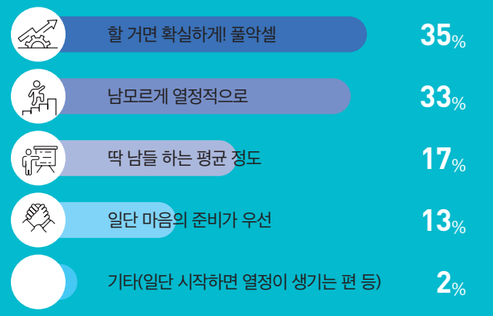
Energy를 충전하는 나만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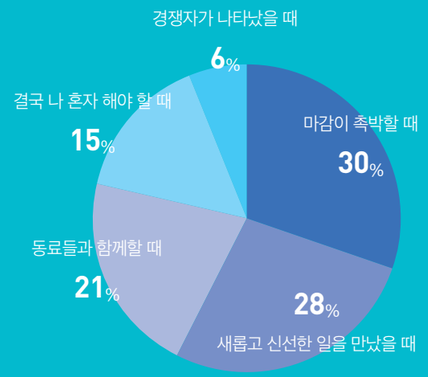
나를 움직이게 하는 Energy의 원천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동력을 발휘하는 타입



동력에 가장 속도가 붙는 시간은?



○○도 기세다! 내가 기세로 도전했던 것

패러글라이딩도 기세다.
무섭긴 했지만 ‘별일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일단 뛰어내렸죠. 멀미로 고생을 조금 했지만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시화도시사업단 **백정아**

고백도 기세다.
와이프에게 대시할 때?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고백은 고민보다 기세입니다.

고령권지사 **이상유**

출가수행도 기세다.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매일 새벽 4시 기상해 새벽 예불, 발우공양, 공양짓기, 매일 300배 수련 등을 했죠. 젊음에 기대어 도전했는데 나를 더욱 깊이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홍보실 **이시안**

실수도 기세다.
발표할 때 대본을 통째로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기세로 밀어붙여서 잘 해냈어요. 즉흥적인 발표였는데 아무도 제가 처한 상황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처) **김동근**

마라톤도 기세다.
10km 완주 기록이 없었지만 ‘도전’에 의미를 두고 광안대교를 건너는 10km 마라톤에 출전해 59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나! 칭찬해~

부산권지사 **박효정**

절약도 기세다.
소비욕을 좀 줄이고자 한동안 무지출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스스로 세운 목표기간동안 정말 무지출을 해냈죠.(봉인 해제되자마자 장바구니를 삭 긁어 구매하는 바람에 그냥 뒤늦게 돈 쓴 사람이 됐던 건 비밀)

한강유역관리처 **김민구**

성장도 기세다.
이전까지 해본 적 없는 업무를 맡아 밤낮으로 고민하고 야근도 수시로 했지만 결국 잘 마무리가 되었을 때 성장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았죠. 결국, 성장도 기세였음!

경영혁신실 **임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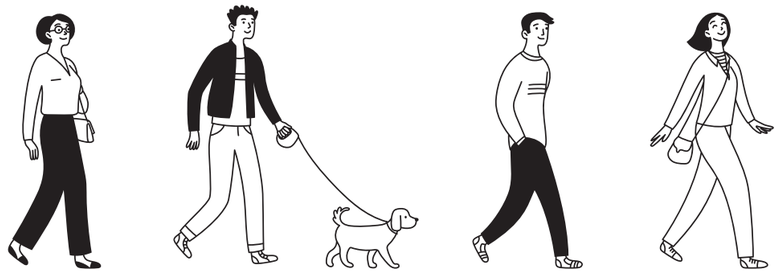
요리도 기세다.
남자로서 요리는 멀게만 느꼈는데 ‘까짓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니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제 요리를 맛본 동료들이 맛있다고 해 주어 기뻤죠.

전남서남권지사 **최윤식**

글. 권준수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당신에게, 조금 느리게 움직여도 괜찮다고,
물 한 잔 더 마셔도 괜찮다고 말해주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찾은
작지만 소중한 이유들이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길을 걷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잠을 자려 해도 땀에 젖은 시트를 벗어나기 어렵다.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는 날들이다.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 이유 없는 불안, 가라앉는 기분, 속이 끓는 듯한 불쾌감이 하루 내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한다.

더위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한 스트레스 자극이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관은 확장된다. 땀을 흘리며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머리가 멍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며, 피로감도 쉽게 누적된다. 무더위로 인해 밤잠을 설치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진다. 수면은 뇌가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시간인데,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방해받으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 피로도 누적된다. 그렇게 몸과 뇌가 동시에 지쳐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짜증을 내고,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무더위는 몸·마음·뇌가 서로 얽혀 상호작용하며 우리를 전반적으로 더 약하게 만든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다. 이처럼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하루를 살아낸다. 아침이 오면 다시 출근길에 나서고, 저녁이면 가족과 대화하며,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가혹한 상황에서도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 그 이유는 단지 돈이나 음식 같은 물질적 보상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더 깊은 심리적 동력이 있다. 그 중심에는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어 한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무더운 날에도 우리는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회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집에 돌아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다. 설령 불편하고 피곤하더라도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연결감과 온기는 우리 마음에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준다.

두 번째 원동력은 '의미'에 대한 욕구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 나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을 움직이게 만든다. 더운 날에도 일을 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인정받고, 성취를 경험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삶에서 의미를 찾는 순간 사람은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삶의 의미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정신적 연료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즐거움'을 향한 욕구다.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밤 산책 중 스치는 바람,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처럼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크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순간들을 찾고, 그 안에서 마음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회복의 방식이다. 우리는 이 작은 순간들을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는다.

무더위 속에서 쉽게 짜증이 나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면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뇌와 몸이 뜨거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에 부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다, '아,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뇌에서는 불안을 조절하는 신경 회로가 더 잘 작동하기 시작한다.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외출 전 물병을 챙기거나, 잠시라도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확보하거나, 짧은 명상이나 스트레칭 시간을 하루 중 일부러 넣는 것만으로도 무더위로 인한 피로감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중요한 건 '나를 돌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스스로의 감정과 컨디션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회복할 여지를 찾는다.

더운 여름은 분명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되묻게 만든다. 관계에서 얻는 따뜻함, 일에서 찾는 의미, 일상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당신에게, 조금 느리게 움직여도 괜찮다고, 물 한 잔 더 마셔도 괜찮다고 말해주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찾은 작지만 소중한 이유들이니까. 그 이유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 더위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다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Talk with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나주수도지사 들른 김에 둘러보는 나주 핫플 언박싱

나주에 출장을 오거나 나들이를 계획 중인 이들을 위해 나주수도지사 직원들이 엄선한 '나주 핫플'을 소개한다. 이 상자에 담긴 각각의 아이템이 바로 나주수도지사 인근의 숨은 명소를 뜻한다. 과연 다음 아이템을 즐기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궁금하다면 수풀과 함께 나주로 출발!





빛가람호수공원

빛가람호수공원은 나주수도지사에서 오 분 거리에 있는 도심 속 공원이다. 넓은 호수 따라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모노레일 타면 금세 도착하는 빛가람전망대는 나주혁신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힐링 스폿이다. 돌미끄럼틀 또한 빠질 수 없는 재미. 유치하게 보이지만 짜릿한 스피드에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는 후문.

유현경 대리의 한줄평!!

"나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모노레일과 돌 미끄럼틀까지 올인원으로 체험이 가능한 나주의 멀티 랜드마크."

빛가람호수공원 전망대

A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호수로 77

하절기(3~10월) 09:00~22:00, 매주 월요일 휴무

동절기(11~2월) 09: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전라남도산림연구원

여름이면 메타세쿼이아 길 따라 맥문동이 보라색 꽃잎을 활짝 펼쳐 아늑하고 황홀한 풍경을 자랑한다.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진 향나무길도 빼놓지 말자. 구름 하나 없는 날이면 초록 나무가 푸르른 하늘까지 쭉 이어져 마치 천국에 닿는 길처럼 느껴진다. 숲 전체가 완만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부담 없이 산책하기에 좋다.

A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7

하절기 (3~10월) 09:00~18:00

동절기 (11~2월) 09:00~17:00



나주수도지사 직원들의 원픽 맛집

원조나주곰탕

나주곰탕의 본진인 나주에 왔으니 나주수도지사 직원들의 원픽 식당으로 가 보자. '노안집', '하얀집' 등 유명 나주곰탕집 중에서도 나주수도지사 직원들이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원조나주곰탕'이다. 깊고 진한 국물에 한술 뜰 때마다 건져지는 큼지막한 고기들이 포인트. 거기에 깍두기까지 한 점 올리면 금상첨화! 한국인이라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맛이라고.

A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건재로 480
T 09:30~19:00(15:00~17:00 브레이크타임).
매달 1, 3, 5번째 일요일 휴무

홍성원 대리의 한줄평!!
"현지인이 추천하는 찐맛집. 누린내 없이 깔끔한 맛에서 내공이 느껴진다. 딱 알맞은 온도로 토렴된 음식과 잘 익은 묵은지가 인상적."





윤시훈 대리의 한줄평!!
"오래된 외관에 박전 있는 콘텐츠,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데다 재미있는 체험으로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

나주가 알려주는 배의 모든 것

나주배박물관

국내 유일의 배 박물관인 '나주배박물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가상 배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영상체험실', 배나무에 소원을 빌어보는 '라이브 스케치' 등 재미있는 체험 콘텐츠들이 많다. 이밖에 키링 만들기, 배즙 마시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주배박물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
T 매일 09:00~18:00
B blog.naver.com/najupearmuseum

당 충전이 필요할 땐

3917마중

3917마중 카페는 '나주배'에 진심이다. 나주배로 만든 스무디와 에이드, 파르페, 차 등 '배시시 음료 시리즈'만 다섯 가지가 넘는다. 여기에 배로 만든 양갱과 나주배 빵, 나주배 스콘 등의 디저트를 곁들이면 달콤한 배 맛에 푹 빠질 수 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나주배청, 나주배 생강청, 나주배 양갱, 나주배 쿠키 등은 선물용으로도 좋다.

A 전라남도 나주시 향교길 42-13
T 매일 10:00~21:00

이희영 대리의 한줄평!!
"시골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나주 배 디저트 한 상. 센서티브한 인테리어와 카페 이용객에게만 공개되는 프라이빗한 정원은 덤."



팔공상회

나주를 선물하세요

나주배쫀드기

나주국밥거리에 위치한 나주배쫀드기 오프라인 숍은 나주 방문 기념 기념품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장소다. 대표 메뉴인 '나주배쫀드기'는 나주 특산물인 '배'를 누구에게나 친숙한 간식인 '쫀드기'로 재해석한 것으로 일체 첨가물 없이 나주 배와 국내산 곡물만을 섞어 만든 건강한 간식이다. 이밖에 배를 모티브로 제작된 그립톡, 수세미, 에코백 등 귀염뽀짝한 굿즈도 많다.

A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142-14
T 매일 09:00~20:00

김형신 대리의 한줄평!!
"추억의 간식에서 익숙한 아이스크림(탱O보이) 맛이 느껴진다. 배의 향과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어 귀갓길 기념품으로 추천!"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노재준



긴장된 하루 속
여름철 안전을 지키는
수자원운영처

여름철마다 들려오는 '폭우', '홍수' 등의 재해, 수자원운영처는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에 맞서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쉼 없이 움직인다. 간식을 즐기는 동안 잠시도 긴장을 놓지 않았던 수자원운영처의 특별한 수타벅스 현장을 담았다.



긴장된 하루 속 여름철 안전을 지키는 수자원운영처

지난 7월 중·남부지방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수자원운영처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실시간 물관리'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여름철 홍수기 동안에는 내내 긴장 상태를 놓지 않는다는 노태달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극한가뭄이나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댐 유역 집중호우, 돌발 홍수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온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책임감을 드러냈다.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적시에 대응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의 기상 및 댐 방류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듯했다.

수자원운영처는 총 다섯 개의 부로 나뉘어 있다. 먼저 통합물관리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컨트롤타워로, 전국의 댐·보·하굿둑 등 50여 개 수자원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며, 물관리 종합상황실을 통해 실시간 물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자원디지털부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물관리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자원ICT부는 전국의 댐과 하천에서 수위와 강수량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계해 정밀한 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2014~2015년 충남 서부권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신설된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는 국가 차원의 가뭄 대응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과 지원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계획부는 수력, 태양광, 조력,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사업을 기획·운영하며, 빠르게 변화 중인 전력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자부심이자 원동력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을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타벅스가 출발했다. 강도 높은 업무를 이어가던 이들에게 수타벅스는 마치 사막의 단비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평소 유튜브를 통해 수타벅스를 자주 보았었는데, 저희 부서가 주인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더 신기하고 반가워요!”라며 조경훈 과장이 수타벅스를 환영했다.

이번 수타벅스 간식으로는 샌드위치와 상큼한 과일, 그리고 주스가 준비됐다. 바쁜 업무로 자리를 오래 비우기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잠깐의 짬에도 든든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구성이었다. 간식과 주스를 챙겨 둘러앉으니 곧 이야기꽃이 활짝 폈다. 그러기를 잠시, 동료들과 바통 터치를 해야 한다며 이내 잰 걸음으로 멀어졌다. 하지만 이 짧은 여유마저도 기다려왔다는 김수빈 대리는 “잠깐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그간 쌓인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최영제 선임 또한 “서로 응원하는 마음도 더 커진 것 같아요.”라며 공감했다.

끝으로 차마 수타벅스를 찾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방울이가 직접 간식 배달에 나섰다. 특별한 선물이 다가온 줄도 모른 채 집중하는 이들을 위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책상 한편에 간식을 올려두고 흐뭇한 표정으로 빠져나왔다. 김경훈 처장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연일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의 안전이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라며 애정 어린 응원을 보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 서로의 자부심이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한다. 매년 찾아오는 홍수기에도 서로을 믿으며 기꺼이 두 팔을 걷는 이들의 앞날엔 안전한 내일만 찾아오길 응원한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수자원운영처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 보세요.



Mini-Interview



통합물관리부 전자훈 부장

이맘때면 20년 전 추억이 떠오릅니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려던 차에 태풍 ‘매미’가 북상해 방재근무를 했었거든요. 당시 편의점 시설이 변변찮아 멀리 떨어진 식당에서 음식을 공수해 직원들과 나눠 먹으며 명절근무를 섰죠. 직원들이 있어 언제나 힘이 됩니다.



통합물관리부 이동훈 차장

방재근무로 이틀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많이 피곤했는데 수타벅스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홍수기와 집중호우 대응으로 바쁜 와중에도 식사를 잘 챙기고, 짧게라도 틈틈이 쉬어가며 일하길 바라요. 현장에서 함께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수자원디지털부 남윤철 과장

저희 수자원디지털부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홍수기에 변화무쌍한 기상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수타벅스라는 잠깐의 여유가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남우성 책임위원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지금은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동 지방은 여전히 강우량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수타벅스가 힘이 된 것 같아요.



수자원ICT부 이상현 과장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 전국 댐과 하천의 수위를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피곤할 때 마침 수타벅스가 달콤한 간식을 선물해주니 힘이 나네요. 물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력계획부 김광훈 과장

전력계획부는 발전사업 계획과 전국의 발전설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이면 기상으로 인한 변수가 많아 예측이 까다롭고 발전설비 운용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동료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글. K-water연구원 AI연구센터 **참고자료.** AI Newsletter 제14호(2025년 3월호)

AI로 인한 물 관리 생태계 변화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일상화를 체감하고 있는 지금, 물 관리 시스템은 보다 정교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인공지능(AI)이다. 물 관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 AI가 도입되며 변화를 맞고 있는 물 관리 생태계를 읽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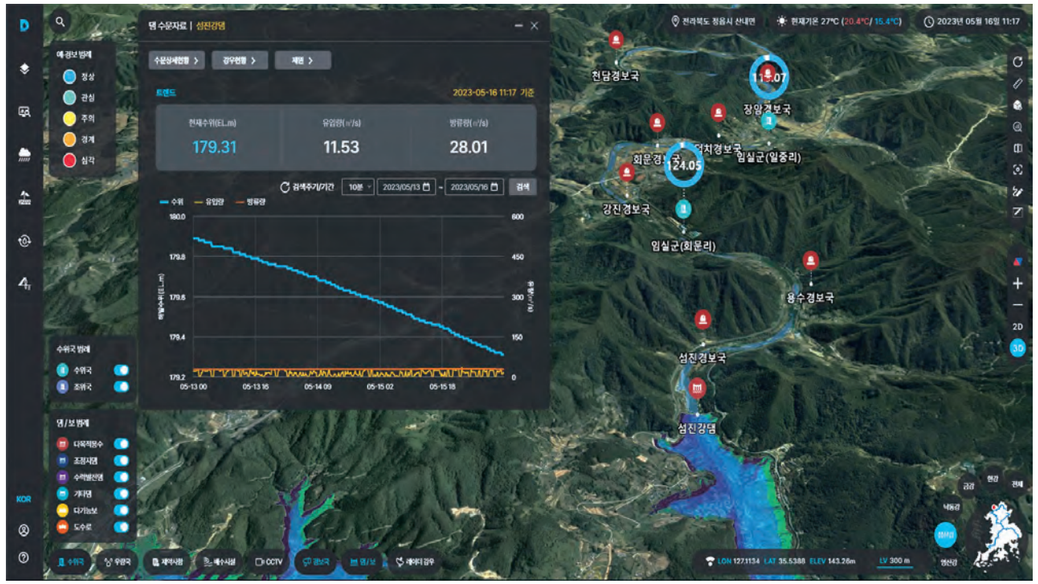


AI 시대, 물 관리는 어디로 흐르고 있나

최근 글로벌 물 관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하 AI)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물 관리가 강조되면서, AI 융합 기술의 고성장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AI는 기계와 데이터 과학의 결합체로서 학습, 추론, 문제 분석, 지각, 언어이해 등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기술이다. 물 관리 분야에 AI가 접목되면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제 해결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본격적으로 AI 기술 활성화가 이뤄지기 전인 200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는 IoT 및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수집·관리를 통해 '스마트 물 관리' 개념이 확산됐다. IBM의 경우 2009년부터 IoT 기반의 수질 감시와 클라우드 기반 물 관리 사업화를 선도했으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이 시장을 선점한다는 인식 하에 독일, 싱가포르 등은 국가 주도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적극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Water 4.0', 싱가포르의 'Water 4.0' 전략 등이 있다.

세계 물 산업 전체 연평균 성장율은 3%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율을 약간 상회하지만 AI, 디지털이 결합된 물 산업 시장은 그 세 배인 연평균 약 9%의 훨씬 높은 성장율을 예상하고 있으며, AI 기술 융합의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수백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물 재해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구글은 2017년부터 홍수 예측 AI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현재는 'Flood Hub'를 통해 100여 개국 7억 명에게 하천 범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AI for Earth' 프로젝트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환경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Planetary Computer'를 운영 중이다.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 물 관리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AI 기반 물 관리 시장은 신흥국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그동안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물 관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서도 우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향후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들이 원격 탐사와 클라우드 기술 등을 통해 기존 인프라 구축 단계들을 뛰어넘고 바로 AI 기반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글로벌 물 전문 리서치 기관인 GWI는 신흥국 중심의 AI 기반 물 관리 시장 비중이 현재 대비 최대 12%p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기준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장 비중은 각각 33%, 26%, 20%였으나, 향후 2030년까지 북미 31%, 유럽 29%, 아시아·태평양 32%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AI로 연결된 물 관리 과정

최근 물 관리 전반에 AI가 도입되어 수량·수질 모니터링부터 수자원 관리, 수처리, 공급 관리까지 다방면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첫째, AI 기반의 수량·수질 모니터링은 물 관리 시장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위성, 드론, 로봇 등 원격탐사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멀티모달 센서를 통해 물 흐름, 이용량,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대응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AI 기술을 통해 비접촉식, 연속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짐으로써 모니터링 효율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AI 시뮬레이션 및 운영 최적화의 기반까지 마련되었다. 또한, 수처리 공정에서는 원수의 수질 현황 예측과 미량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의 자동화가 실현되고 있다.





둘째,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AI 기술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홍수 예측 시스템이 있다. 강우량, 댐과 하천의 수위, 기상 데이터 등을 AI로 분석해 조기 경보를 내리고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미 AI 기반 글로벌 하천 수위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환경부도 2024년부터 AI 홍수 예보 서비스를 개시, 하천 수위를 10분마다 자동으로 예측하여 홍수특보 발령에 활용 중이다. 가뭄 대응에도 AI는 지표수와 지하수 현황을 분석하여 용수 배분량을 미리 조정하거나 댐 방류량 조절을 돕고 있다.

셋째, 수처리 공정에서도 AI 기술이 꾸준히 연구·적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하폐수 중심에서 상수 처리 분야(AI정수장, 담수화, 초순수 등)까지 실체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폐수 처리 과정에서는 복잡한 미생물 거동을 AI로 예측하여 공정을 단순화하고 산소 주입량 등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개발 중이다. 상수 처리의 경우 공정 운영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사용자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최적의 운영방식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와 관련한 AI정수장의 국제표준(ISO)까지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 관리 분야에서도 AI 기술 활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누수 탐지 기술이 있다. 압력 센서와 유량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이상 패턴을 식별함으로써 무수수량(NRW, Non-revenue Water)을 현저히 줄이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Thames Water는 AI 시스템 도입으로 누수 탐지 및 설비 이상 감지율을 기존 대비 20% 이상 향상시켰으며,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AI 기반 누수 관리 정책과 IoT, 음센서 등의 첨단 기술을 병행하여 누수율을 22%p에서 7.8%p로 크게 낮췄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 수량의 공급측 손실은 약 30%로 추정되며, AI 기술을 도입할 경우 이 손실량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공급 설비의 실시간 진단과 잔여 수명을 예측하여 교체 시기를 최적화하고, 소비 패턴과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물 수요를 예측하는 등 공급 관리 분야에서도 AI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 관리의 새로운 과제

이처럼 AI는 물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정교하게 관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데이터 기반 수질·수량 모니터링부터 정수장 자동화, 누수 탐지 및 수요 예측까지 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다만 기술의 도입이 확장될수록 물 관리 주체 및 기업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이터 주권 확보, 사이버 운영 강화, 윤리적 기준 마련과 같은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 물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 문제, 고영향 영역으로서의 물 데이터 관리 등은 앞으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한 것은, AI는 더 나은 물관리를 위한 유효한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QR코드를 스캔하여 K-water연구원의 『Water & Tech INSIGHT』 최신호를 만나보세요.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달콤한 온기, ‘온(溫)가족’의 첫걸음

성심당과 함께한 케이크 클래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가족들이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온(溫)가족’이라는 이름처럼 가족들의
마음속에 따스한 온기를 남긴 시간이었다.

온(溫)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하루

‘온가족’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는 한자 ‘온(溫)’에서 오는 따뜻함, 또 하나는 순우리말 ‘온’이 지닌 ‘모두 함께’라는 의미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사회 주니어보드는 ‘가족 모두 함께 따뜻한 시간을 나누자’라는 취지를 담아 올해 ‘온(溫)가족’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구하는 가족친화경영의 실천이기도 하다.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직원이사회 주니어보드에서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다. 바로 대전의 명소 성심당과 함께한 케이크 클래스였다. 한국수자원공사 가족들이 설렘을 안고 대전의 명소, 성심당 문화원의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케이크 만들기 도구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성심당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클래스는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이 되어 직접 케이크를 만드는 체험이었다. 반죽을 섞고, 생크림을 바르고, 달콤한 망고를 듬뿍 올리면 나만의 케이크가 완성된다. “엄마, 이번엔 내가 바를게!”, “와~ 정말 잘하네.”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는 눈빛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따스함이 느껴졌다. 그렇게 완성된 케이크에는 행복한 기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단순한 디저트가 아닌, 서로를 위한 작은 선물이자 추억의 조각이었다.

가족들은 곱게 만든 케이크를 들고 K-water 인재개발원으로 향했다.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곳에 도착한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 보며 “우와. 엄마, 아빠가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라고 말했다. 그 속에는 감탄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뜨거운 관심, 다음은 ‘과학특집’

이번 프로그램은 단 열 가족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무려 45팀이 신청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심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믿음이 직원들에게 전해졌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온(溫)가족’ 프로그램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시리즈의 주제는 대전의 또 다른 자랑이자,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과학’이다. 조리도구 대신 실험도구를 들고 탐험해 볼 과학 세상이 기다려진다.

















01

물관리 전 분야 AI 전환 및 수자원 기반 재생에너지 확대

지난 7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 임원, 전국 부서장 등 약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경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7일 윤석대 사장을 단장으로 출범한 'AI First 전략기획단'이 전사 차원의 AI 전환 전략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물 분야의 AI 전환은 국민 생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그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을 디지털화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전 분야 AI 전환을 본격화한다. 또한 2027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과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AI 서비스를 물 분야 의사결정 전반에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물관리 혁신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물관리 전 영역에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정책에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도 선도한다. 수열, 수력 등 물 에너지로 산업계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사업 모델 확대로 지역 상생형 ESG 경영을 강화할 전망이다.





02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지원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용 가능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를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자체에 병물 약 9만 병을 신속 공급했으며, 경남 산청군에는 비상급수차 4대를 긴급 투입해 주민 생활용수를 지원, 울산시와 경남 합천군 등에는 관로 누수 복구와 정수장 수질 안정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이동형 세탁 차량 3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 방역과 의료 버스를 운영해 피해 주민의 건강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컵밥, 라면, 음료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자도 전국 피해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특별재난지역과 해당 지역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1개월분의 요금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며 감면 규모는 최대 6억 2,300만 원으로 예상된다.

03 ‘2025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 분석기술 심화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2025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 분석기술 심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상 및 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분석기술과 디지털 물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하고 있는 기상기후 데이터의 대국민 확산, 디지털트윈과 연계된 가상 홍수 시나리오 분석 모형 및 영상레이더를 활용한 수재해 모니터링 기술 등 최첨단 디지털 물관리 기술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 등 다양한 운영 사례도 선보이며 기후위기 적응 이행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과 AI기술 접목 성과를 확인하고 동시에 민관 협력의 결실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기후위기 시대 해법을 마련하고, 다양한 AI 기술을 실용화하여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04 인도네시아 덴파사르시와 디지털 물관리 협력 확대



지난 7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 디지털전환추진단 및 ODA사업처는 인도네시아 덴파사르시를 방문해 자야 네가라(Jaya Negara) 시장을 만나고, 디지털 분야 물 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초격차 기술 SWNM의 글로벌사업 확대를 위해 개발 중인 ‘글로벌 유수율 제고 SaaS’를 소개 및 시연했고, 덴파사르시에 해외 최초의 SaaS(Soft as a Service) 실증 시범 테스트사업을 제안했다.

덴파사르 시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우수한 SWNM 기술에 감명받았으며, SWNM 기술이 덴파사르의 누수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실증 테스트사업에 긍정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덴파사르와 장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상수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05 국민연금공단과 ‘데이터 기반 행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데이터 기반 행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도 사용량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자 관리 업무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줄거나 일정 기간 사용 기록이 없을 경우, 수급자의 거주 여부나 생활 상태를 점검하는 지표로 삼게 된다. 이밖에 양 기관은 수도 사용량 정보 연계와 기술·행정적 협력,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및 공동 활용 방안 마련,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06 국내 최초 소수력 기반 그린수소 출하 개시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 실증시설에서 소수력 발전을 활용하여 생산한 그린수소가 출하됐다. 이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 전기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국내 첫 사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소환경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그린수소 첫 발걸음’이라는 부제로 출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 소수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의 실증 성과를 공유했다.

성남 그린수소 생산 실증시설은 소수력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총 44억 원을 분담하여(국고 3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3억 원) 구축한 시설이다. 본 시설에서는 하루 최대 188kg, 연최대 약 62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그린수소는 우선 2025년 9월까지 육상 운송방식으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의 ‘성남시 수소충전소’에 납품된다.

글. 조수빈 사진. 박갑순

빛과 온기가 흐르는 물길

홍제유연-홍제천

과거 홍제천은 '사람을 구하는 물길'이었다. 병자호란 때 끌려갔다 돌아온 아녀자들이 '환향녀'라며 손가락질을 받을 때 인조가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며 일체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겠다'라고 공표하며 그들을 구했다고 한다. 최근 홍제천은 '예술이 흐르는 물길'이다. 빛과 온기가 더해져 시민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있는 서울 속 물길을 걸어보자.

분단의 아픔이 담긴 공간, 유진상가

1970년 홍제천을 복개한 자리에 위치한 유진상가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주상복합건물이었다. 북한의 남침을 대비한 대전차방어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1992년 내부순환도로 공사로 건물 한쪽이 잘린 독특한 형태로 남게 되었다. 이후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유진상가의 지하 공간이 2020년 서울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사업'을 통해 변모했다. 새로운 형태의 공공미술을 선보이는 '홍제유연'은 '화합과 이음'이라는 메시지 아래 남북의 분단, 산업화 시대, 무분별한 재개발시대 등 여러 역사성을 담고 있다.

물과 사람들의 인연이
함께 흘러 예술로 치유하고 화합한다

弘濟流緣

물과 인연이 함께 흐르는 곳, 홍제유연

홍제유연(弘濟流緣)이라는 이름은 '물과 사람들의 인연이 함께 흘러 예술로 치유하고 화합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프고 어지럽던 과거를 지나 자연과 사람, 예술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홍제유연'이라 적힌 간판을 지나 어둠으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물소리이다. 한가운데로 흐르는 홍제천을 에워싸고 양옆으로 미술 작품이 늘어서 있다. 빛이 들지 않는 지하의 특성을 고려해 빛, 조명, 영상, 사운드를 매체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둠의 세계에서 또 다른 감각들이 만들어낸 광경에 자연스레 몰입도가 높아진다.

가장 처음 만나는 작품은 천여 개의 <홍제 마니차>다. '마니차'란 티베트 불교에서 경전을 적은 종이를 원통에 담아둔 것을 일컫는데, <홍제 마니차>에는 '내 인생의 빛나는 순간, 내 인생의 빛'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적어 내려간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 각자가 가장 빛나던 순간을 공유하는 동안에 따뜻한 마음이 서로에게 가닿는다. 중앙부에는 3D 홀로그램 작품인 <미장센_홍제연가>가 설치되어 있다. 크기가 다른 10개의 스크린이 연동되어 홍제천 지하에 생겨날 자연의 모습을 예측해 보여준다. 바닥을 비추는 <숨길>은 숲의 그림자로, 관객들이 걸음과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메인 작품은 팀코워트의 <온기(溫氣)>이다. 42개 기둥을 빛으로 연결한 이 조명예술작품은 초입 돌다리의 정가운데 섰을 때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 물에 비친 형상으로 이어지는 빛의 향연이 홍제천을 감싸 안은 듯한 느낌을 준다.









자연 - 사람 - 예술을 아우르는 물길

염상훈 작가의 <두두룩터>는 도심과 공공미술의 응접 장소다. 지하 홍제천의 비일상적인 경험을 연장하는 동시에 도심의 산책로와 하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 그러나 홍제유연 바깥에서도 예술은 이어진다. 홍제3교에서 사천교까지 홍제천을 따라 이어지는 구간은 '홍제천 산책로 미술관'으로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브 카유보트, 에두아르 마네 등 서양 화가를 비롯해 이인성, 김기창의 작품 등 동서양을 아우르는 주요 그림들이 교각에 전시되어 있다.

홍제천을 따라 더 걷다 보면 하천을 건너기 위한 수문인 '홍지문길', 인공폭포인 '홍제폭포', 낙하분수, '포방터시장', '옥천암' 등 다양한 볼거리와 만날 수 있다. 특히 높이 25m의 홍제폭포는 인공폭포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으며, 여름철 내내 무더위를 잊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로 북적이는 곳이다. 건너편 수변 카페와 야외 테라스 등도 시원한 도심 속 물소리를 즐기기 좋은 장소다.

홍제천은 과거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날에는 예술과 만남의 장소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물길을 따라 걸으며 도심 속에서 색다른 경험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홍제유연

A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8-84 유진상가 지하
H 매일 10:00~22:00
T 02-2133-2710

홍제폭포

A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70-181
H 08:00~21:00

글. 최서윤 CBS 기자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단의



최서윤 CBS 기자

햇볕이 뜨겁고 몹시도 더웠던 지난 7월 8일. 아침엔 서대문, 낮엔 국회에 머문 뒤 18시 20분쯤 세종시에서 식사를 하던 중 여의도에 있는 지인에게서 비가 많이 온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이후 18시 50분 호우경보로 격상되더니 19시 27분엔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 침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경기 광명과 파주의 낮 최고기온이 7월로는 사상 처음 40도를 넘긴 바로 그날의 일이죠.

6월 중반~하순쯤 다소 일찍 찾아온 장마 소식을 전하며 올여름 장마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 패턴을 보일 거란 전문가 관측을 담아두었습니다. 이후 '마른장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비 예보 없다, 엉뚱한 소리'라는 분노에 찬 댓글 뭇매를 맞은 터라, 한편으론 기습 폭우 소식에 내심 안도감이 스친 것도 맞습니다. 가방 안에 한 달간 쟁여둔 양·우산이 드디어 빛을 발하겠거니, 든든한 마음으로 귀가한 것도 덤이고요.

그러나 극한기후가 심화하며 국내외에 발생하는 사건·사고 앞에서 '물 폭탄을 피했다'라고 기뻐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지난 7월 4일 미국 텍사스를 덮친 집중호우는 과달루페 강 상류 수위를 순식간에 8~9m로 높여 300명 가까운 사망·실종을 야기했고, 스페인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남부 등 지구촌 곳곳의 갑작스러운 폭우 피해 소식은 '누구든,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매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기릴 이유도 여기 있죠.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근대 관측 이래 과거 30년(1912~1940년) 대비 최근 30년(1991~2020년)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씩 오르고, 강수량은 17.71mm씩 증가했습니다. 극한기후를 나타내는 최고기온 33℃ 이상의 여름철 폭염일수는 최근 10년(2010~2020년) 들어 평균치가 10일 이상으로 늘었고, 열대야일수도 10년마다 0.12일꼴로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반면 겨울철 한파일수는 10년마다 2.62일씩, 서리일수는 3.23일씩 감소세입니다.

계절을 살아가며

주목할 부분은, 1910년대 연 180일을 훌쩍 넘겼던 총 강수일수가 최근(2010~2020년)엔 연 120일을 겨우 넘길 만큼 감소한 점입니다. 10mm 이하 구간의 강수일수는 10년마다 2.98일씩 줄고 이 구간 강수량도 0.7mm씩 감소한 반면, 80mm가 넘는 물폭탄 강수일수는 0.08일씩 늘고 강수량도 10.16mm씩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수일수가 줄 때 강수량이 늘었다는 건, 비가 한번 올 때 더 세차게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세계 모습을 아우르는 양극화란 단어가 비단 정치·경제 현상에서만 쓰이는 표현은 아닌 게 돼 버린 셈이네요.

물을 다스리는 당국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화당 텃밭' 텍사스 사태에 뒤늦게 노심초사하는 걸 보면 자연재해 때마다 정치권력에 대한 민심이 요동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경제부처는 하반기 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으로 밥상 물가가 올라, 기대하던 민생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질까 비상인 모습이고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또 다른 극단의 파고에서 AI(인공지능)라는 '제n의 물결'을 앞두고도 극복할 기술과 적응할 지혜 사이에서 우위를 가리는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당 강수강도별 강수량(일수) **변화**(1912~2020년)

10mm 이하 강수일수	80mm 이상 물폭탄 강수일수	80mm 이상 물폭탄 강수량
2.98일 감소	**0.08일 증가**	**10.16mm 증가**

글. 최행좌 그림. 추관소

용이 사는 생명의 근원 금강산 구룡폭포

세차게 떨어지는 거대한 물줄기, 귀를 때리는 거친 소리, 하얀 물보라. 폭포를 보면 마치 날아오르는 용의 몸짓 같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 설화에는 폭포와 용이 얽힌 이야기가 많다. 그중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인 금강산 구룡폭포에는 용이 아홉 마리나 살고 있다고 한다. 금강산 구룡폭포의 전설을 살펴본다.

생명력 넘치는 물줄기

금강산 구룡폭포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화나 시는 한 손에 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조선시대 화가 최북이 그 아름다움에 동화돼 폭포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금강산 구룡폭포의 절경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120m의 장대한 폭포는 그 규모만큼이나 너른 품으로 많은 이야기를 안고 있다. 인도에서 온 53불상이 아홉 마리 용을 쫓아내고 지었다는 유점사의 창건 설화를 비롯해 붓꽃의 유래, 폭포에 깎인 여러 가지 모양의 돌, 폭포 위 상팔담과 얽힌 설화 등 다양한 이야기가 물살에서 샘솟았다.

그러니 그 이름 역시 그냥 지어졌을 리 만무하다. 구룡폭포의 이름은 옛날 유명한 학자였던 정학에 의해 지어졌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정학이 금강산에 놀러 왔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과 동행하던 중 골짜기에서 울려퍼진 천둥소리에 몹시 놀란 정학은 잠시 쉬었다 가자고 했지만, 노인은 저것은 자연의 조화라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무서움을 누르고 다시 걸음을 옮기던 정학의 눈에 무지개가 걸리고 곧, 흰 무명필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용이 조화를 부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용은 폭포였다. 하얗게 빛나는 거대한 물줄기가 마치 용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폭포의 이름을 짓자고 마음을 먹은 정학은 종이 위에 용(龍)을 적었으나 다음 자가 생각나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에게 노인이 말했다. 폭포는 아홉 가지 조화를 부리는데, 흰 물살이 용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조화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신비한 것이 두 번째 조화라고 했다. 그와 같은 재간을 아홉 가지나 부린다는 설명에 정학은 무릎을 치며 아홉 마리 용이 있다고 해야 할 것 아닌가 했고, 그리하여 구룡폭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

그러나 구룡폭포를 위세 넘치는 물줄기에 대한 찬사로만 읽을 수 있을까. 옛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령한 존재였던 용은 비·천둥·번개를 다스리는 수신의 상징이기도 했다. 불교에서 용은 부처의 법을 수호하고 수행자를 돕는 존재였으며, 도교에서는 기(氣)가 솟는 명당에 깃드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런 용이 폭포에 산다고 생각했던 데에는 당시 사회의 주 산업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옛날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고 농업은 물이 흥망을 좌우했기에, 물을 생존의 근원으로 여긴 것이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폭포는 그 자체로 생명이 흐르는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왜 아홉 마리일까? 동양에서는 홀수를 '하늘의 수'로 여겼고, 그중 가장 큰 한 자리 홀수인 9는 완전함을 상징했다. 불교와 도교에서도 9는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여 아홉 마리 용은 완전함, 신성함에 대한 은유이자 하늘과 가까운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룡폭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공간으로서 땅의 염원을 하늘에 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대 영화에서 폭포는 강렬한 감정의 변화, 사건의 전환을 의미하는 미장센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상징성은 달라졌으나 강렬한 생명력에 대한 경외심은 여전히 투영되어 있는 듯하다. 용과 인간의 감정까지 폭포는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품고 흐르고 있다.

동양에서는 홀수를 '하늘의 수'로 여겼고, 그중 가장 큰 한 자리 홀수인 9는 완전함을 상징했다. 불교와 도교에서도 9는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여 아홉 마리 용은 완전함, 신성함에 대한 은유이자 하늘과 가까운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기술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물의 시대

물, 이제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이다!

#기술혁신 #물의 시대
#물안보

WWW.YOUTUBE.COM/KWATERTV



블로그

K-물길 따라 합천 한 바퀴

#합천댐&합천호 #합천영상테마파크
#정양늪생태공원 #해인사



X(트위터)

**방울 대리~!
이것 좀 부탁해~!**

#대박 #리얼 열심히 하는
#방울이의 직장생활



페이스북

여름철 호우·태풍 대비 행동요령

#호우특보기준 #침수상황
#차량침수대비 #여름철교통안전



인스타그램

GPT도 냉면 먹고 싶은 날씨

#GPT의 점메추 #냉면대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8월호 이벤트 안내

Vol.689

EVENT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8월호 사보 또는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배스킨라빈스 버라이어티팩(5명)
접수 마감일	8월 20일
선물 발송일	8월 31일

참여하기

EVENT 2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언다?

선풍기 바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더위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기 위해 냉동고를 열었는데, 아차! 얼음이 하나도 없다. 급히 얼음을 만들기 위해 얼음 틀을 꺼내다 말고 이런 얘기가 떠오른다.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언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STEP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STEP 2	1:1채팅방 클릭
STEP 3	정답 및 의견 (정답 및 의견/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간편한 한끼 세트(커피+베이글)
접수 마감일	8월 25일
선물 발송일	8월 31일

참여하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7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손○진(4319)

표지부터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wave'라는 주제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사진들! 특히 서퍼 권민호 님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 역동적인 서퍼의 멋진 사진을 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2208)

바닷가 동네 죽변 출신으로 해산물을 특히 좋아하는 저에게 'Taste Note'가 이번 호 최고의 기사였습니다. 쫄깃한 문어와 고소한 고등어. 김칫소로 최고인 굴까지! 글을 읽는 동안 입에 침이 고일 정도였어요.



안○수(0839)

이십여 년 전 지인과 찾았던 영주. 부석사의 아름다움과 새벽길 절에 오르면서 맛보던 영주 사과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KTX를 타고 영주의 새로운 명소인 영주댐 물문화관도 가보고 싶어졌어요!



여○호(7526)

안동권지사가 낙동강 유역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게다가 지역 안전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수타벅스를 통해 직원들이 응원받길 바라요.



구○현(6975)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즐겁게 읽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호 이봉주 선수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 좋았어요. 몇 년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황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YES or NO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 10명

물을 마시고 자면 붓는다? 정답은 NO

자기 전에 물을 한 컵 정도 마신다고 해서 붓지 않는다. 다만 자기 직전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마시거나, 짠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부을 수 있다.

박○현(9314) 양○인(3279) 정○빈(1130) 황○경(0411)
서○훈(8374) 장○석(0834) 정○윤(5528)
송○영(8272) 전○벽(4095) 최○리(8871)

#감정표현 방울이 이벤트

이벤트 경품 업사이클링 키트 5명

고○선(0025)
고○우(9829)
김○은(9204)
염○현(8289)
장○래(2959)



※8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방울이 옷 입히기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8월 20일
선물 발송 8월 31일

응모하기

여러분의 취향대로 방울이를 꾸며보세요!

여름을 맞아 운동 삼매경에 빠진 방울이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세요.
멋있게 변신한 방울이 모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업사이클링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경품
업사이클링 키트
(5명)





웹진 바로가기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心다

온 마음으로 지키는 안전, 안심 K-water

K-water '안전'의 새 물결

맑은 물방울에 담긴 '마음 心'에는 K-water의 안전이 조용히,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 위엔 작은 반짝임 하나로 우리의 최우선 가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心다'라는 말 안에는 안전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우리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K-water, 안전을 마음에 心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